

도내 경제인 올림픽 성공 기원 릴레이 후원

모금운동 한 달 3,500만원 돌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도내 경제인들의 염원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강경연)는 평창올림픽 후원금 모금 운동을 추진한지 한 달만에 모금액이 3,500만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에는 도레미콘조합(이사장: 이성열)이 300만원을 전달했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모두 26곳으로 각각 10만~500만원씩 후원금을 기부했다. 도 아스콘조합, 기계조합, 대한건설협회 도회, 여성경제인협회 도회, 의식업중앙회, 한국전기공사

협회 도회, 한국경영혁신강원연합회, 영월종합상가조합, 도오징어조합, 사진앨범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등 9개 경제단체, 7개 조합과 해송 KNS, 라눅스, (주)삼정 매니지먼트 등 중소기업 10여곳도 힘을 보탰다. 강경연은 후원사 발굴난을 겪고 있는 평창올림픽에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이사회에서 후원금 모금을 결의했다.

한편 여성경제인협회 도회가 이달 초 평창으로 전국여성CEO경영연수를 유치해 올림픽 붐업 MOU를 체결하도록 이끌었고, 도건설협회가 서포터즈 운영, 입장권 구매 등을 하반기 사업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파급효과 7000억 돌파

2014년부터 건설사 21곳 참여
공사물량 7238억원 지역 배분

원주시가 시행 중인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의 지역 파급효과가 7000억원대를 넘어서게 됐다.

시는 14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기업도시 1-2 및 2-2블럭의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아파트'와 기업도시 5, 6블럭의 '롯데캐슬 골드파크아파트' 시공사와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반도건설(대표 박현일)이 시공을 맡은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지상 30층 548세대인 1-2블럭(59㎡형, 84㎡형)의 경우 30.43%(213억원), 지상 30층 794세

대인 2-2블럭(〃)은 30.33%(307억원)으로 총 520억원에 대해 지역업체가 참여한다. 롯데건설(대표 하석주)이 시공하는 롯데캐슬 골드파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상 25층 624세대인 5블럭(59㎡형, 84㎡형, 111㎡형)의 경우 30%(212억원), 지상 25층 536세대인 6블럭(〃)은 30.60%(204억원)으로 총 416억원의 물량이 지역업체로 풀린다. 이들 업체의 동참으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21곳의 대형 건설공사가 참여해 무려 7238억원에 달하는 공사물량이 지역업체로 배분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 앞서 롯데건설은 2000만원, 반도건설은 1000만원의 이웃사랑 기부금을 시에 전달했다. 정태욱

김정섭 신진종합건설 대표, 강원경제인 건설혁신상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김정섭 신진종합건설 대표(건협 강원도회 부회장·사진)가 강원도 강원일보사에서 주관하는 강원경제인상 건설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강원경제인상은 도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제인을 응

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신진종합건설은 1995년 설립돼 국가기반시설 공사와 문화재 수리업 공사 등을 꾸준히 수주하고 산학연 협력으로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7 강원경제인 페스티벌'에서 진행된다.

SOC 예산 축소 빨간불로 대형사업 빨간불 켜진 강원도

소규모 공사로 돌파구 찾는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소 움직임으로 강원도 내 대형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 내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을 잠정 확정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공여·주변지역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변경안을 보면 도내 춘천시와 원주시 등 7개 시·군에서 9개 사업이 국비 180억 원을 비롯해 424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주요 계획을 보면 9개 사업 중에 7개가 신설 사업이다.

신규 사업은 춘천 번개시장 기반시설 확충(40억원), 원주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50억원), 홍천 건강공원(40억원), 횡성 용둔~구방간 도로확포장(48억원), 횡성 공영주차장 조성(16억원), 철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탄력

내년부터 9개 사업·424억 투입

도 추경·지역발전사업 등도 주목

갈말 생활환경개선(50억원), 철원 동송 205호선(담터 진입로) 확포장공사(50억원)이다.

도가 추진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78억원)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73억원) 등 소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여기에 내년 정부 예산 중에서도 제2경춘국도 등 도가 추진하는 대형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도 건설업계가 관심을 가질 중·소규모 사업이 적지 않다.

우선 지역발전사업에 5540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산어촌 및 특수

상황지역 개발(1548억원)과 노후상수도 정비 및 상수도시설 확충(582억원), 생태하천 복원,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시설 확충(457억원) 등도 건설업계의 참여가 필요한 내용들이다.

여기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정비(767억원)와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사방사업(743억원) 등 민생안정 관련 분야에도 건설 관련 예산이 있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건설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482억원), 군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사업(151억원),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4억원) 등이 있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작은 도내 대부분 건설사들은 소규모 건설공사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대형 건설공사도 분할발주해 참여 건설사 수를 늘려달라고 발주처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